

2월 11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2월 11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구제안 실망’ 뉴욕 일제 급락..다우 4.6%↓ [다우: 7888.88 (-4.62%)	10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가파른 급락세로 마침. 주요 지수는 일제히 4% 넘게 미끄러졌고 다우 지수는 7,900선을 하회함. 금융구제안 내용에 대한 실망과 효과에 대한 의문이 한꺼번에 제기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림.
재무부·연준, 최대 2조 弗 금융안정책 발표.. ‘실효성 의문’	재무부는 부실자산 매입 등을 위해 정부와 민간 공동의 금융안정신탁(FTS·Financial Stability Trust)을 설립하고 규모는 초기 5,000억 달러로 시작해 1조 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가계와 소기업에 대한 ‘기간 자산담보부증권 대출창구(TALF·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의 지원 규모를 기존 2,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대폭 확대하기로 함.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은 최대 2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금융구제안에 자금 조달과 운영 방식, 논란이 돼온 부실자산 가치평가 방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제기.
상원, 8380弗 경기부양법안 승인..발효까지 ‘난항’ 예상	미국 상원은 이날 8,38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승인. 상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은 2,930억 달러 규모의 감세와 5,000억 달러 이상의 재정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함. 한편 상·하원 경기부양법안은 감세 규모 등의 논란 속에 승인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왔으며 공화당 의원들이 여전히 경기부양법안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에 최종 발효까지도 난항이 예상.
美 12월 도매재고 16년來 최대 급감	미국의 작년 12월 도매재고가 최근 16년 사이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미 상무부는 작년 12월 도매재고가 전월대비 1.4%나 감소했다고 10일 밝힘. 이는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도매재고 감소 폭인 0.8%의 거의 배에 달하는 것이며 감소 기간도 4개월째 계속됨.
유가 5% 폭락.. ‘금융구제안 실망’ [WTI: \$37.55 (-\$2.01)	이날 유가는 장초반 금융구제안과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41.8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국제유가가 금융구제안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5% 이상 폭락. 상원도 8,38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승인했으나 공화당의 반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발효까지 난항이 예상. 내일(11일) 발표될 예정인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유가 하락을 부추김.

제목	주요 내용
中 경제 디플레이 위기	지난 1월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이 각각 -3.3%와 1.0%로 급락하면서 중국경제가 디플레이션의 문턱에 바짝 다가섬.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들에 대해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한발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하며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
中 증시 3일째 급등 ...1.82%↑	중국 증시가 금리인하 기대로 3일째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상하이종합지수는 10일 2,265.16으로 1.82% 올랐고 선전성분지수는 8,265.56으로 2.2%, B주지수는 145.77로 3.61% 급등. 이날 증시는 최근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급변동장세를 연출했고 오후장 한때 약세로 돌아서기도 했으나 장 막판 중국석유와 중국석화 등 석유업종의 급등이 지수를 견인하면서 3일째 가파른 오름세를 보임.
[유럽증시] 실망스런 美금융구제안으로 하락 마감	10일(현지시간) 미 정부의 금융구제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유럽증시는 하락 마감. 이날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의 FTSE 100 지수는 2.2% 하락한 4213.08로 마감했고, 프랑스 파리증권거래소의 CAC 40 지수는 3.6% 내린 3020.75로 장을 마칩.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의 DAX 30 지수는 3.5% 떨어진 4505.54를 기록.
불(佛) 정부, 르노·푸조 에 11조7000억원 특별 융자	프랑스가 극심한 판매 부진으로 자금난에 빠진 르노, 푸조 자동차를 구제하기 위해 65억 유로(11조7,000억원)의 장기 특별 융자금을 제공하기로 함.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9일 르노, 푸조 자동차에 각각 30억 유로, 르노 트럭(볼보 자동차 소유)에 5억 유로의 장기 저리 자금(5년간 연 6% 금리)을 대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
수출中企·영세업자 50 조 추가보증	이번 조치는 2기 경제팀을 구성한 `윤증현 재정부 장관-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손발을 맞춘 첫 작품인 데다 기업들의 `돈가물`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음. 재정부는 이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자본금 확충 규모를 금융위에서 넘겨받아 이를 추경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
은행 자본펀드에 10兆 이상 신용보증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은행 자본확충펀드에 10조 원을 지원하며 이때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10조원 이상을 보증.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자본확충펀드에는 한은이 10조 원, 산은이 2조 원을 각각 지원하고 나머지 8조 원은 기관 및 일반투자자가 참여.
정부, 산업차원 구조조 정 밀그룹 마련	정부와 금융권은 1차 구조조정이 진행된 조선과 건설업종에 이어 위기 극복 대책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전 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우선적으로 상황이 시급하고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동차, 반도체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밀그룹을 마련한 상태. 다만 자동차산업 등 각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차 등 개별 기업의 구체적 처리방향 등 이른바 '생사 판단'은 향후 경기 움직임에 따라 변수가 많아 구조조정에 직접 담지 않을 계획.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